

# 『玉駕再合奇緣』: 脫家門小說的 視角 또는 視點의 萌芽

정 병 설

- |                |           |
|----------------|-----------|
| 1. 序 論         | 4. 視點의 萌芽 |
| 2. 異本, 書誌 및 後篇 | 5. 結 論    |
| 3. 脫家門小說的 視角   |           |

## 1. 序 論

『옥원재합기연』은 조선의 대표적 여성소설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빈약한 편이어서 1990년 이후에야 하나둘 나오고 있다.<sup>(1)</sup> 필자 또한 이 작품에 대해 두어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하나는 이 작품의 작가가 여성임을 밝힌 것이고<sup>(2)</sup>, 다른 하나는 여성소설적 특징에 대한 것이다.<sup>(3)</sup>

(1)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심경호, 1990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 은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8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② 최길용, 1992 『조선조 연작소설연구』, 아세아문화사(제2부 8장 「옥원재합기연 연작」, 제3부 2장 「옥원재합기연의 작자고」).

③ 양혜란, 1993 「옥원재합기연 연구」,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④ \_\_\_\_\_, 1994 「18세기 후반기 대하 장편가문소설의 한 유형적 특징 - 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75, 일지사.

(2) 줄고, 1997 「옥원재합기연 작가 재론 — 조선후기 여성소설가의 한 사례」,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 국문학과.

(3) 줄고, 1998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 2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이밖에도 필자는 이 작품에 나오는 부부싸움의 한 장면을 조선후기 부

이들 연구를 통해 이 작품의 대체적인 성격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소설사적 비중에 견주어 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 조선조 소설 가운데 여성작가의 작품으로 단정할 수 있는 유일한 소설이니만큼, 여성소설 연구의 기준으로서 여성소설로 추정되는 다른 작품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남성소설과의 비교도 치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송대의 유학자들을 대거 등장시킨다든지 작품 내에서 등장인물 서술자를 군데군데 노출시킨다든지 하는 작품의 특성 또한 소설사적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사실 상기한 필자의 논문에 앞서 발표되어야 할 글이다. 왜냐하면 본고는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고전역주사업에서 작품 해제로 준비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정상 순서가 바뀌게 되었고, 따라서 여기서는 앞의 글에서 개진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 즉 서지, 연작관계, 작품의 성격, 서사기법, 소설사적 위상 등이 두서없이 서술될 것이다.

## 2. 異本, 書誌 및 後篇

『옥원재합기연』의 이본으로는 현재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21권 21책, 이하 '규장각본'으로 약칭)과 『옥원중회연』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21권 21책, 제1권~제5권은 없음, 이하 '낙선재본'으로 약칭)의 두 종이 알려져 있으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밖에도 완질의 연세대 도서관 소장본과 낙질의 이화여대 도서관 소장본이 있다. 규장각본과 낙선재본의 이본 비교는 이미 심경호의 상기 논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 간추려 말하면, 두 이본은 대체로 내용상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규장각본이 비교적 오기가 적으므로 善本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필체와 보존상태로 인하여 읽기 힘들다는 약점이 있다. 두 이본의 권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하에는 아직 소개된 바 없는 연세대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부의 역학관계라는 측면에서 읽어낸 적이 있다(1998 「조선시대의 부부싸움과 부부의 力學: 옥원재합기연」, 『문헌과 해석』 5, 태학사).

## 《규장각본 및 낙선재본 권차 조건표》

규장각본권수	낙선재본해당부분	낙선재본권수	규장각본해당부분
1	逸失	1(逸失)	.
2	"	2(逸失)	.
3	"	3(逸失)	.
4	"	4(逸失)	.
5	6-1~7-23까지	5(逸失)	.
6	8-54까지	6	5-471~5-557
7	9-61까지	7	6-82까지
8	10-58까지	8	7-189까지
9	11-10까지	9	8-308까지
10	12-10까지	10	9-464까지
11	13-27까지	11	10-576까지
12	14-42까지	12	11-102까지
13	15-7까지	13	12-227까지
14	15-112까지	14	13-379까지
15	16-72까지	15	15-523까지
16	17-38까지	16	16-71까지
17	17-142까지	17	17-210까지
18	19-21까지	18	18-314까지
19	20-47까지	19	19-404까지
20	21-56까지	20	20-496까지
21	21권 끝까지	21	21권 끝까지

\* 각 책의 쪽수는 '권수-쪽수'의 방식으로 표시한 것이며, 낙선재본의 쪽수는 각 책의 본문이 시작되는 곳부터 한 쪽 씩 번호를 매겨 표시한 것이고, 규장각본의 쪽수는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필사본)고전소설전집』에서 매긴 쪽수를 그대로 표시한 것이다.

연세대본은 10권 10책으로, 책의 크기는 34.5×27cm 내외로 거의 동일하며, 한 책의 분량은 대개 40장 정도이고 한 면에는 15×30자의 글씨가 빼곡이 필사되어 있어서, 작품의 글자수는 대략 360,000자 내외이다.<sup>(4)</sup> 필체로 볼 때,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全冊이 한 사람에게 의해 필사되었는데, 표지 제목은 “玉駕再合 甲”에서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의 순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內題는 “옥원지합 기봉연”(1, 4, 8)과 “옥원지합 등회연”(2, 3, 5, 6, 7, 9, 10)의 두 가지로 쓰여 있다. 특히 제6권의 마지막장에는 쓰다만 제6권의 첫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옥원등회연 권지늑/어시의 니공지 비스하니 한님이 정식고”라고 되어서, 『옥원재합기연』이 “옥원재합”, “옥원중회연”, “옥원재합기

(4) 원래 ‘延禧友愛會文庫’로, 1932년 10월 10일 연희전문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봉연”, “육원재합중회연” 등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세대본에는  
 때 卷末에 흥미로운 필사기가 부기되어 있기도 하다.

① 세지 신묘 하스월 념녹일 총총 종서 막필추서 허약이 막심하니 보시느니 놀  
 어보시고 홍보지 말시라

② 세지 신묘 오월 초스일 필서 가득 노둔한 필지의 점점 슈전증이 심하여 더  
 욱 되지 아니하는 거술 공향의 서칙 어더보기도 극난하기 노리의 심심파적이나 흘  
 가 하고 시죽하였더니 점점 실증이 나 망특히 괴적여시니 보시느니 홍보실 널 답  
 답

③ 세지 신묘 오월 상한 필서 글시 점점 아니되니 답답 보시느니 홍보실 널 붓  
 그럽도다

④ 세지 신묘 하오월 념일 종서 설화를 탐내어 시죽은 하였으나 비통과 슈전증  
 으로 글족쇼이 바담을 막고 오즈낙셔도 만코 글시 족족하니 보시느니 놀너보실츠

⑤ 세지 신묘 오월 념녹일 총총 필서하다 가득한 글시의 아들의 과거 방성 들  
 마음이 갈룬 흥의 제워 그려호은지 각식으로 생각이 만하 마음 안든 치료한 둥 쓰  
 니 더욱 오즈가 만스오이다

⑥ 세지 신묘 녹월 십삼일 총총 종서하니 가득 둔필이 마음은 총총하고 실증을  
 곁하여 슈전증 건비통 각식으로 쌀 길 업스나 본문을 너모 오러두어 반만 츠져가  
 니 불안스럽고 남은 칩이 반이나 되고 더밋치 벗기지 못하여서 문호서칙을 보니라  
 하시니 언제나 다 벗겨서 줌 빌니올지 아모조록 슈이 쓰고즈 하여 틈틈 괴력이나  
 아들의 도문일즈는 박두하고 슈은 갈눈하여 가득 실증 만은디 글시 더욱 되지 안  
 으니 보시느니 놀너 보시고 홍보지 마르시옵

이 칩 본문을 쓴 지가 스십여년 되었는디 그도 돌필이 막오 글니고 년구한 둥  
 얄은 톱지의 쓴 거시 부풀고 뒤편지고 스연이 종이 아니 더은 말이 무슈흐옵고 그  
 러나 그 칩 전가지보로 앗기는 거시라는 거술 줌 아닌 마음의 너여 노흔 모양인디  
 그일 보고 벗기노라 하여도 즈연 더 부풀고 만이 상하였시니 무안호더이다.

⑦ 세지 신묘 칠월 십스일 총총 종서

⑧ 세지 신묘 팔월 초삼일 필서호노라 오월의는 훈 권을 스오일의 쓸너니 점점  
 마음이 갈룬하고 세스의 어저혀 걱정되논 일이 만하 훈 권을 시죽한 지 이십일만  
 의 맞쳐시니 또 두 권이 남어시니 언제나 끌고 답답다

⑨ 세지 신묘 팔월 십녹일 종서

⑩ 세지 신묘 팔월 십칠일 시죽하여 십팔일 이일만의 다 벗구나

(\* 앞의 숫자는 권수를 가리킨다.)

필사기로 볼 때, 필사는 “신묘 하스월 념녹일”부터 “팔월 십팔일”까지로(신  
 묘년은 1891년으로 추정됨), 빠르면 한 권에 이틀이 걸리기도 하고 길면 한  
 달이 소요되기도 하면서, 불과 네 달 못되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필사기를 통해 우리는 필사 정황에 대한 몇 가지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필사자 노인은 서책을 얻어보기도 어려운 “궁향”에서 “심심파적”으로 “탐”나는 “설화(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이웃집의 “傳家之寶”인 『옥원재합기연』을 빌려 필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필사자는 불과 들재 권을 필사하면서부터, “수전증”과 “견비통”을 호소하면서 실증을 포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사자가 실증을 느낀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身病 때문인가? 필사자는 필사 저본이 필사된 지 40여 년이 지난 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스연이 종(終)이 아니다은 말이 무슈”하다고도 말하고 있다. 특히 제4권의 끝 부분에는 본문 윗단(天)에 “예 어디셔 낙필을 하였던가 말이 공이 닳지 안는 거시 별안간 알든 이야이가 웬일이고 오즈낙서도 하 만흐니 벗길 슈가 업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로 볼 때 실증은 신병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오자낙서가 많은 저본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과거 보러 간 아들의 소식까지 궁금해서, 필사자의 마음은 더욱 어지러워 실증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신병, 열악한 저본, 착잡한 심리 등에도 불구하고 필사자가 필사를 지속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제8권 종반부의 두 장 정도는 원필사자의 필체와는 다른 줄필이 보이는데, 심심파적으로 시작했다면 왜 필사를 중도에 멈추지 않고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루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필사기는 이에 대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제1권에서 제6권까지의 필사기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보이는 불특정한 독자에 대한 겸사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필사자가 비록 심심파적으로 필사를 시작했다고 해도, 또한 그것은 불특정한 독자를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다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사를 종결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필사기로 볼 때 필사자는 세책가 등에 납품하기 위하여 필사한 것 아닌가 추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세대본을 다른 이본과 비교해볼 때, 연세대본은 首尾가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은 다른 작품의 절반에 불과하다(규장각본은 약 623,000자이며, 연세대본은 약 360,000자 내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연세대본은 열악한 저본의 상태로 인하여 많은 내용을 누락시킨 불량 이본인 셈이다.

이처럼 『옥원재합기연』은 육십여만자의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본이

내 종이나 확인되는 꽤나 인기있었던 작품이다. 더욱이 이 작품이 『옥원전해』와 『십봉기연』이라는 자매편까지 두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 작품의 인기는 여실히 드러난다. 다만 『십봉기연』은 「諺文古詩」(서울대 규장각 소장) 등에 그 제목이 실려 있어 당대에 실존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실물이 전하지 않지만, 『옥원전해』는 다행히 서울대 규장각에 유일본이 소장되어 있어서 『옥원재합기연』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옥원재합기연』과 『옥원전해』의 관계는 일반적인 의미의 연작 또는 파생작과는 다소 다르다.<sup>(5)</sup> 연작의 후편에는 대개 전편 주인공들의 후손들이 벌이는 사건이 서술되며, 파생작에는 대개 전편 주인공들의 주변 가문 인물들이 벌이는 사건이 중점적으로 서사되는데 반해, 『옥원전해』는 『옥원재합기연』에서 생략된 부분들이 보충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sup>(6)</sup> 이는 『옥원전해』의 제1권 앞부분에서 서술된 『옥원재합기연』의 제작경위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먼저 옥원앙이 작품의 여주인공 이현영에게 전해진 경위가 설명된다. 일찍이 당 현종은 곤륜산에서 난 옥으로 원앙을 만들어 양귀비에게 선물하고자 했으나 잃어버린다. 그것이 결국 이현영의 시아버지인 소송의 장인 손에 들어오고 이현영에게 이르는 것이다. 작품의 서술자인 석도침은 낙양에 사는 이과라는 인물이 저술을 많이 남겼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는데, 여기서 이러한 사연을 적은 글을 보게 된다. 이 글을 우연히 소식의 아들 소과가 보고 기록하여 직접 문장을 윤색한 다음 제목을 『옥원재합기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이과에게 보내어 출판하게 한다. 이과는 이 글이 “동정재니쇼저 반축쥬인 노고의게 드룬 바물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이 글이 널리 퍼지긴 했지만 삼 년이 지나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는데, 소과가 백부 소철에

(5) 송성욱(1999 「대하소설의 연작 유형에 대한 시론」, 『국문학연구』 3,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285면)은 이 작품을 반복형 연작 유형에 포함시키면서도 “여타의 반복형 연작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6) 연세대본의 필사자는 본문 마지막에 “후일의 부 옥원전희서를 지으니 더기 물유 시종하고 사유본말이 전희서의 슈미를 갖초 괴셔하고 니랑부부의 괴스를 미담으로 다 기록하나 오히려 지미로운 설화 더 업스니 분히어다”라는 다른 이본에는 없으며 여타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속편에 대한 폄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옥원전해』가 보여주는 補遺篇으로의 성격 때문으로 생각된다.

게 보이고자 하여 석도침과 함께 소철을 방문하는데, 이 자리에서 마침 소철과 대화하고 있던 황정전 등이 이 글을 훌륭하다고 칭찬한다. 이 자리에는 작품의 주인공인 소세경도 가담하였는데, 소세경은 이 글을 경박자의 글이라며 군자의 취할 바가 아니라고 폄하한다. 소세경의 경계를 들은 석도침은 이를 함부로 전하지 않는데, 우연히 경진수(소세경의 외삼촌 경운의 조카)가 보고 다시 이현윤(경운의 사위)까지 보게 되어, 나중에 석도침은 이현윤으로부터 죄를 얻는다.

이처럼 『옥원전해』는 옥원앙이 소송에게 전해지게 된 경위라든지 『옥원재합기연』이 운문되고 출판된 경위 등 『옥원재합기연』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한 작품인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이 전편의 '補遺篇'으로의 성격을 지니는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목에 있는 '箋解'라는 말이 註釋的·解說的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옥원재합기연』은 『옥원전해』라는 후속의 '補遺篇'과 아울러 『십봉기연』이라는 후편까지 갖춘 보기 드문 유형의 작품으로 이 작품의 독특한 성격은 후속편의 형식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다.

### 3. 脫家門小說的 視角

선행연구는 『옥원재합기연』을 애정소설(심경호), 기봉류소설(심경호 양혜란), 가문소설(최길용, 양혜란)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소세경과 이현영의 결연담 및 이현윤과 경빙희의 결연담의 두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남녀의 결연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애정소설로 부를 수도 있고, 그 만남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기봉류소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또한 소세경과 이현영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소 및 성취 등이 蘇氏家와 李氏家의 집안 문제로 귀결되므로 가문소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작품에 대한 앞선 여러 견해는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들이 작품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며 검토해보자.<sup>(7)</sup>

『옥원재합기연』의 주인공은 소세경이다. 소세경의 아버지 소송은 스승의 아

(7) 이하의 작품 출전은 모두 규장각본을 대상으로 한다.

들인 이원익의와 자식들의 혼인을 약속하는데, 이로써 소세경은 이원익의 사위로 정해진다. 그런데 소송이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여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되자, 이원익의는 망한 집안과 혼인할 수 없다며 전일의 혼약을 저버리고 딸을 권세가에 시집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이원익의의 이런 행동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힌다. 딸 이현영이 열녀이기 때문이다. 이현영은 혼약을 어기는 것을 절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고 아버지의 권고에 결사 반대한다. 한편 몰락한 소세경은 반대파의 공격을 피해 숨어 다니고, 이현영은 칼로 자신의 얼굴을 긁는 등의 행동으로 父命에 저항하다가 결국 가출하고 만다. 그러다가 신법 시행의 주모자인 왕안석이 물에 빠진 이현영을 건져 양녀로 삼음으로써, 위기는 해결의 전기를 맞는다. 왕안석이 소송을 복권시키고, 이현영은 외삼촌의 도움으로 소세경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제4권까지의 줄거리)

그런데 소세경과 이현영은 당초의 혼약대로 결혼에 이르지만, 부부의 정은 그리 깊지 못하다. 왜냐하면 소세경이 여전히 장인 이원익의를 거리고 있고, 이현영은 전일 스스로의 과도한 행동에 대해 심히 자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세경과 이현영의 부부갈등은 사실 제5권과 제6권에서 여러 사건과 함께 약간 서술될 뿐이다. 그런 다음 소세경은 곧 사마광에게 가 수학하기 위해 오랫동안 집을 비운다. (제7권 중반까지의 줄거리)

이후 사건의 진행은 소세경의 宦路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제9권과 제10권에는 한 권 분량 정도로 이원익의가 개과천선하게 되는 경과가 서술되어 있지만, 대개 소세경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 이주통판 등의 벼슬을 맡아 백성의 어려움을 구하는 치적에 중점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현영의 동생 이현윤과 소세경의 외삼촌 경빙희의 혼인 문제가 여기저기서 드문드문 병치되며 서술되고 있다.

작품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볼 때, 이 작품은 현대인들이 떠올리는 이성간의 애뜻한 사랑을 그린 애정소설이 아니며, 설사 남녀 절연담을 가지고 애정소설이라 한다고 해도 그 절연은 이미 앞 부분에서 끝나버린다. 다시 말해서, 애정소설적 성격은 기봉류소설적 성격과 함께 작품의 서두 부분에 이미 막을 내리는 것이다. 설사 결혼 후의 부부불화까지 혼사장애에 포함시켜 이 작품을 혼사장애형 소설이라고 한다 해도, 이 역시 제7권에서 종결되고 마니, 애정소



설이니, 기봉류소설이니, 혼사장애형 소설이니 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지적이지만, 부분성을 면치 못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가문소설인데, 조선후기에 널리 퍼진 종법질서 또는 가문의식과 연관시켜 볼 때, 이 작품이 가문소설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을 가문소설로 분류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가? 작품의 중심 이야기를 소세경과 이현영 및 이현윤과 경빙희의 결연담이라 하고, 중심 갈등을 이원익과 소세경의 응서갈등 및 소세경과 이현영의 부부갈등으로 보아, 인물들을 장인과 사위,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 내적 지위로 치환시킨 다음, 이 작품을 蘇氏家와 李氏家의 결연과 갈등 및 양가의 흥망성쇠를 그린 가문소설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접근 시각이 작품의 핵심을 제대로 포착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실 이 작품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주인공 소세경의 고난, 결연, 성취, 안정 등을 그린 '소세경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결혼 전에 아버지의 혼인 권유에 반대해 자해, 가출, 자살을 기도하는 여성수난적 면모를 잘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 가난한 시집을 부흥시키는 모성애적 구원자의 성격을 보여준 이현영의 작중 비중까지 고려한다면, '소세경(이현영)부부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옥원재합기연』에서 두 주인공의 가문은 작품의 배경에 불과하며,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소세경과 이현영의 두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일 뿐이다.

『옥원재합기연』에서 가문보다는 등장인물의 개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중심 사건의 발생 동인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소세경과 이현영의 결연에 장애가 생긴 것은 신법당과 정견을 달리한 蘇氏家의 정치적 몰락 때문이다. 그러나 몰락의 근본 원인은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소송의 강직한 성격 때문이다. 더욱이 결연의 결정적 장애는 이현영의 아버지 이원익의 소인이라는 데에 있다. 이원익이 나서서 딸 이현영의 전일 혼약을 물림으로써, 비로소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그는 나중에 사위가 성공하자 사위에게 '肉袒負荊'하는 추태까지 벌인다. 마찬가지로 이현영이 자해와 자살을 거듭하는 것 역시 일차적으로는 아버지의 부당한 혼인 요구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녀가 강직한 열녀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는 우유부단한 이원익을 제외하

고는 소세경, 이현영, 이현운, 경빙희 등 대다수의 등장인물들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뚜렷한 자기 원칙과 주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인물들의 개성으로 인하여 서술된 사건들은 팽팽한 긴장감을 지닌다. 요컨대 이 작품의 인물갈등은 가문갈등 이전에 성격갈등의 형태로 잠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가문소설로 규정하고 접근하면 자칫 작품이 다채롭게 포출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작품은 여타 장편소설에 비해 가문보다는 등장인물의 개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시된 작품이다. 그러므로 그 배경이 되는 가문에 초점을 맞추어 가문소설적 시각에서 작품을 분석한다면, 작품의 특성은 의미 있게 포착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문소설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 작품을 읽게 되면, 인물의 개성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가문소설적 시각에서 간과되었던 작품의 배경으로서의 역사 또는 정치현실이 다시 의미 있게 읽힐 수 있다. 그 한 예가 작품에 등장하는 왕안석에 대한 평가이다. 양혜란(1993)은 심경호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신법당으로서 작품 초반에 악역이었던 최고실력자 왕송상이나 여혜정은 작품 진행 도중에 특별한 동기없이 슬그머니 선인으로 전환하여 악인을 지탄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 정치적 당파간의 갈등과 대립은 작품 초반부의 설정장치 외에는 특별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 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가문소설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 작품을 읽게 되면, 신법당과 구법당의 정치적 대립이 ‘설정장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소세경의 아버지 소송은 왕안석의 신법 시행에 반대하는 바람에 유배형을 당하며, 소세경 또한 이때문에 반대당의 공격을 피하여 도피·유랑한다. 말하자면 왕안석은 작품의 서두에 주인공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인물인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왕안석은 작품의 서사를 반전시키는 결정적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물에 빠진 이현영을 구해 기르며, 소송의 억울함을 전해 듣고는 소송을 해배시킨다. 다시 말해 왕안석은 주인공에게 병도 주고 약도 준 인물인데, 이 때문에 양혜란은 왕안석을 작품의 초반에는 악인이었으나 작품 진행 도중에 슬그머니 선인으로 전환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작품을 꼼꼼히 읽어 나가면 작품 서두에 왕안석을 악인으로 보았다는 증거는 없다. 아래의 인용문은 각각 이현영, 소송, 소세경의 왕안석에 대한 평가이다.

“괴운이 높고 정신이 물가 조요한 미우의 문치발월하며 단응환 괴상은 스텔를 쓴 구름 꺾치 녀이고 일세를 굴치 아니니 가히 도덕을 조괴하여 넘군을 요순의 날 위고 경논의 지략으로 빅성을 건디를 조임하는 명공이물 알디라.”(1-187)

“공(소송)이 본디 형공(왕안석)의 문혹을 항복하여 당간이 도흔 배려니 근기의 어그르쳐 크게 공격하나 미양 그 교의 으으하던 일과 고지 문혹으로 시절의 병들 물 위하여 차탄하더니”(2-237)

“당세에 안석이 문당박남흔 선비로 진실노 큰 쓰지 이서 경논하기를 녀여시디 오직 조허하기를 과히 하고 세상을 밋디 아니하여 쓰디 놓흐디 소견이 어두어 호 착하기로써 용납흐물 허터 아니하고 순스하기로써 용납하여 천하의 공을 폐하니 일이 이에 니르렀는디라. 국가의 병역을 썰치고 일농이 부요하야 치례를 진괴코져 하미 도로혀 준민고학하고 부식극괴하야 슈원변방하고 피폐괴병하니 이는 도시 안 석의 죄 아니라 그 용인하기를 그릇하야 좌우의 두포의 뉴와 하리의 당이 그릇 도 와 첨요하고 요열흐물 밀디흐미 아니니잇가”(12-245~246)

제1권에 있는 이현영의 인물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품은 처음부터도 왕안석을 악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 다만 왕안석의 무리한 신법 시행과 아들 왕방의 비행에 대해 그에게 책임이 없지 않다고 말할 뿐이다. 소세경의 인물 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왕안석은 높은 이상과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을 잘못 만나 자신의 국가 경륜을 그르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왕안석에 대한 후대 또는 당대의 역사적 평가와도 일맥상통하는데<sup>(8)</sup>, 이처럼 가문소설적 시각에서 벗어나 작품이 던져내고 있는 여타의 중요한 의미들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이러한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에도 작가가 매우 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옥원재합기연』에는 왕안석 외에도 다수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여 소설의 등장인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司馬光(1019~1086)은 소세경의 스승이며, 歐陽修(1007~1072)는 이현윤의 스승으로 경빙희와의 결혼을 주선한다. 그리고 소세경은 程顥(1032~1085)와 程頤(1033~1107), 이른바 二程 형제에게도 수학한 것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이주통판이 된 다음에는 朱熹(1130~

(8) 제임스 류(1991 『왕안석평전』, 지식산업사, 26면)는 왕안석에 대한 주자의 평이 대체로 비판적이지만 그를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조선에서도 洪汝河(1621~1678)의 『木齋集』(제6권, 「王安石論」) 등에서 왕안석에 대한 평을 볼 수 있는데, 그를 마냥 악인 또는 奸臣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다. 대체로 그 사업의 동기가 사악하다기보다는 사업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

1200)의 증조부를 申冤시켜 주기도 한다. 또한 서술자는 蘇軾(1037~1101)의 아들이 이 작품의 이야기를 윤색하여 『옥원재합기연』을 만들었다고 하며, 蘇轍(1037~1112)과 黃庭堅(1045~1105) 등이 이 작품을 훌륭하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이처럼 『옥원재합기연』은 宋의 名儒들을 작품에 등장시키거나 작품과 연관짓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교유를 염두에 두면서 실감나는 宋儒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가문소설적 시각에서 벗어나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이러한 배경 설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眞德秀(1178~1235)의 『大學衍義』 이래, 조선후기 당론의 주요한 논점이었던 군자·소인의 분별 문제에서도,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마광과 왕안석이 군자·소인의 대표적인 모델이었음을 상기할 때<sup>(9)</sup>, 이 작품이 宋儒의 세계를 소설의 배경으로 삼은 것은 현실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후기의 이념적 이상형이었던 宋儒들을 소설작품의 구체적 문맥 속에 위치지움으로써, 당쟁으로 혼란스러운 현실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처세 방략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웅대한 치세의 경륜을 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만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들과 하수인의 비행까지 겹쳐 비판을 한 몸이 받게 된 인물 왕안석, 정치 권력에 눈이 어두워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인물 여혜경, 아무런 이념도 없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 부평초처럼 떠도는 속 없는 인물 이원의, 올바른 정치적 소신을 바로 행동에 옮기는 인물 소송, 정치적 소신은 있으나 행동에 신중을 기하는 인물 경운 등, 정치적 견해뿐만 아니라 개성까지 각인각색인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 작품이 향유되던 18세기 당대의 독자들은 자기 혹은 자기 일족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태와 구체적으로 견주어 볼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옥원재합기연』은 역사소설적 성격과 아울러 정치소설적 성격마저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작품을 가문소설로 규정하여 가문소설적 시각에서 분석하면, 작품이 포출하는 많은 중요한 의미들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국문 장편소설을 가문소설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개별작품의 특징을 捨象하고 상투적인 해석으로 귀결되기

(9) 지두환, 1998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역사문화, 81-113면.

쉽다. 가문소설적 시각이 유효한 작품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거둔 성과 역시 적지 않지만, 문학연구에서는 부단히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며, 더욱이 작품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접근방식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현단계의 고전소설 연구에서 탈가문소설적 시각이 요구되며, 『옥원재합기연』은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 4. 視點의 萌芽

앞 장에서 『옥원재합기연』은 배경은 비록 중국이지만, 조선의 정치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말하였다. 사실 조선후기의 일반적 中華意識을 감안할 때, 중국을 배경으로 하였다는 것 자체가 비사실적·비현실적 징포일 수 없다. 당 시에는 한반도의 역사를 중국의 일부 또는 그와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경향이 주조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현실의식이 충만하면서도 중국을 배경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적 현실감을 뚜렷이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서사기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시점이라 하여 시점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고전소설연구자나 현대소설연구자를 막론하고,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1인칭 인물시점이든 3인칭 인물시점이든 시점에 대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인식은 근대 이후에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고전소설의 작가들은 시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까? 근대에 들어와 시점은 어떻게 발전되고 형성되어 왔는가? 이런 서사기법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별도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시점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근대 이후 서양으로부터 수입되었다고 설명해버리는 것은 우리 소설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다소 국수적인 감정상 견해를 불이지 않더라도 시점의 형성을 온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다.

시점은 '스토리가 말해지는 위치'라고 범박하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sup>(10)</sup>, 이는 통상 서술자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결국 작가와 변별되는 서술자의

(10) 조남현, 1982 『소설원론』, 고려원, 229면.

발전으로부터 시점은 발전·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고전소설의 시점을 막연히 전지적 작가시점이라 부르고 마는 것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한 현대소설 연구자는 “김동인은 기호적 공간을 통한 액자소설의 형식을 수립함으로써 시점의 일차적인 완성을 본다”고 말하고 있는데<sup>(11)</sup>, 사실 액자소설의 형식은 傳奇소설에서 종종 채용되는 것이다. 그 일례로 『운영전』을 들 수 있겠는데, 유영이 壽聖宮을 春遊하다가 김진사와 궁녀 운영의 亡靈을 만나 그들의 사랑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들이 기록한 책을 갖고 귀가하여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김동인의 액자소설 『배따라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영과 같은 등장인물 서술자의 존재를 부각시켜 서술자와 서술대상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수법은 근대 이전에도 전혀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밖에도 『완월회맹연』, 『명주보월방』, 『쌍천기봉』, 『유효공선행록』 등 국문 장편소설의 서술자는 神的인 전지적 작가라기보다는 엄정한 史筆의 筆致를 보여주는 역사기록자적 서술자인데<sup>(12)</sup>, 그들은 또한 종종 작품 말미에서 작품의 창작경위와 작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서술된 작가는 실제 작가가 아니라 서술자가 꾸며낸 가상의 작가이다. 즉 이는 서술자가 작품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용한 ‘가상작가’인 것이다.<sup>(13)</sup> 국문 장편소설의 서술자가 신적인 전지적 작가도 아니거니와 서술자가 제삼의 가상작가를 설정한다는 사실은 이들 작품의 서술자를 단순한 전지적 작가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다만 이처럼 제삼의 가상작가를 설정하여 서술자의 시점을 재조정하려는 기법적 시도가 작품 전체를 관류하지 못하고 말미에 잠깐 내비치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옥원재합기연』은 기법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옥원재합기연』도 다른 장편소설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말미에 창작경위와 아울러 가상작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작품의 중간중간에도 가상작가를 등장·개입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소세경 부부, 이현윤 부부

(11) 장수익, 1999 『한국근대소설사의 탐색』, 월인, 125면.

(12) 졸저, 1998 『완월회맹연연구』, 태학사, 66-70면.

(13) 가상작가에 대해서는 졸고, 1999 「계축일기의 작가문제와 역사소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회, 161면에서 약간 논의한 바 있다.

및 이원의 부부가 안방에서 사랑을 나누거나 다툰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을 터인데, 이런 은밀한 일이 있으면 거의 반드시 이 일이 가상작가에게 전해지게 된 경위도 부기된다. 제7권에서는 이원의 부부의 부부싸움을 마침 가상작가인 석도침(이원의의 처남인 공문약의 조카)이 보았음을 서술하고 있고 제 17권에서는 소세경 부부의 房中事가 이현영의 유모 실파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다시 어떤 부인에게 흘러갔다가 석도침의 형 도연에게 전해졌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권에서는 그 경위가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렇다면 은밀한 일이 서술될 때마다 그것이 가상작가에게까지 전파된 경위가 설명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작가가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전지적 작가의 전지적 시점을 채택한다면 그 경위는 설명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작가가 작품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전지적 시점은 그리 좋은 방법일 수 없다.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전지적 작가의 설정은 모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볼 때 작가는 소설의 사실성 고양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음에 틀림없고, 그 결과가 이러한 서사기법의 채용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옥원재합기연』에서 새롭게 모색된 서사기법은 다른 국문 장편소설에서는 작품의 마지막에야 등장하던 가상작가를 작품의 중간중간에 드러냄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기 어려운 일을 가상작가라는 제삼의 인물의 시점을 투과시킨 다음 서술하려는 서사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비록 현대적 의미의 인물 시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서사전략의 지향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전지적 시점에서 탈피하여 등장인물의 시점(3인칭 인물시점)으로 전환하려는 몸짓으로 이해된다.

단적으로 말해 『옥원재합기연』은 고전소설이 서술자와 시점을 발견해 가면서 근대소설로 나아가는 도정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작품이다. 시점의 발견은 근대소설의 가장 중요한 변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8세기 중반에 이러한 변화의 한 분기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옥원재합기연』은 매우 주목할 만한 작품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아야만 근대소설의 시점 형성 과정 또한 온당하게 설명될 수 있다.

## 5. 結 論

『옥원재합기연』은 조선조 소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세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서술시각의 측면에서이다. 이 작품에는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들이 주변인물로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심인물인 사마광과 왕안석은 조선후기 당쟁의 주된 논란거리였던 군자와 소인의 분변에 있어서 대표적 모델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은 당대의 주된 이념적, 정치적 논쟁을 작품의 주된 틀로 삼으면서, 소설을 통해 당대의 중심 담론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적 위계 내에서 하위에 있었던 소설이 당대 정치의 중심 담론에 본격적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은 소설의 위상을 한 단계 고양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서사기법의 측면에서이다. 이 작품은 근대소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기소설이나 여타 국문 장편소설에 비해 한 발 앞선 서사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서술자와 시점의 발견과 형성에 있어서 종전보다 진전된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사가법적 측면에서 『옥원재합기연』은 고전소설에서 근대소설로의 이행과정에서 한 분기점을 이루는 중요한 작품이다.

셋째 여성문학적 측면에서이다. 필자의 다른 글에서 밝혔듯이, 이 작품은 여성작가의 작품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고전소설이다. 여러 문헌기록과 정황증거로 볼 때, 여성작 고전소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밖에는 여성작 소설로 단정할 만한 작품이 없다. 안경재의 어머니 전주이씨(1694~1743)처럼 확실한 고전소설 작가라 할 수 있는 여성이 없지 않으며, 그가 지었다는 “완월”이 『완월회맹연』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 『완월회맹연』을 그의 작품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작품은 여성작 소설로서 여전히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설령 고전소설에서 다른 실명 여성작가가 발견된다고 해도 그 작가의 생애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이므로, 고전소설에서 여성작품은 실명 여성작가보다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니며, 여성작 소설로 이 작품이 지닌 가치는 흔들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옥원재합기연』은 적지 않으리라 추정되는 여성작 고전소설연구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옥원재합기연』은 조선후기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한 여성이 주변적 장르인 소설을 통하여 스스로 서사기법을 갱신하면서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 고자 한 소중한 시도의 소산이다. 이러한 노력은 금세기에 들어와서야 결실을 맺게 되는데, 20세기의 막바지에 소설계의 중심에 자리잡은 수많은 우수한 여성작가들이 바로 이들의 적자인 셈이다.

(필자 :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